



平生學所得氣味如今不勤心



서가 풍경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한 귀퉁이

미술평론가 유홍준 교수의 서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유홍준 교수의 서가는 한국미술사 분야의 작은 도서관을 연상시킬 만큼 전문적이면서 방대하다. “모두 헤아린다면 1만권쯤 되지 않을까.” 유교수가 말끝을 흐린다. 주섬주섬 훑아보면 영남대에 있는 미학과 서양미술사 관련 원서가 1천여권, 서울에 있는 답사 자료와 전시도록 등이 각 1천여권, 한국미술사 자료가 2천여권, 국학 관계자료가 3천여권, 그밖에 슬라이드가 3만여 점 등이다. 유교수가 주로 글을 쓰는 책상 뒤쪽에 위창 오세창 선생의 전서가 걸려 있다.

平生力學所得處 평생 배움에 힘써 얻은 바란
政要如今不動心 진실로 지금과 같은 부동심이다

이밖에도 서가 여기저기에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 박수근의 <어머니와 아들>, 김홍도의 <강변의 나룻배> 같은 포스터그림이 걸려 있다. 많이 들여다본 책이라며 오세창의 <근역서화징>, 맥퀸의 <History of Korean Art>, 《아나기 무네요시 전집》 등을 꺼내던 유교수가 창틀에 놓인 자갈돌을 가리킨다. “아오라지에서 주워왔습니다. 부랑쿠지의 조각을 닮지 않았습니까?”

둘 아래에 부랑쿠지의 얼굴조각 사진이 붙어 있다. 그런 듯 그렇지 않은 듯. 문득 눈길을 돌리니 창밖으로 ‘寶丁山房’이란 현판이 보인다. ‘정다산을 보물처럼 여기는 산방’이란 뜻으로 다산초방에 추사가 써놓은 글귀를 떠놓은 것. 그 현판 앞쪽으로 옮겨심은 들꽃 몇 송이 바람에 흔들린다. 여름도 아주 한복판으로 접어든 듯. 움직일 줄 모르고 자리를 지키는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다.

— 김연수 기자

